

“45세까지 아이들로 불리고 싶어”

16년만에 '2016 리-앨범' 발표한 젝스키스 응답하라 1997·무한도전 덕분에 컴백



을 가요계의 최고 화제는 단연 젝스키스(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의 컴백이었다.

2000년 5월 공식 해체한 이들이 MBC TV '무한도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결합하며 물꼬를 트자 S.E.S, NRG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이 다시 뭉쳐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YG엔터테인먼트에 등지를 큰 젝스키스가 16년 만의 신보인 '2016 리-앨범'(Re-ALBUM)을 최근 발표했다. 과거의 대표곡을 새롭게 편곡해 수록한 리메이크 앨범이다. 다섯 멤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YG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흐름에 대해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로 인해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룹 H.O.T와 젝스키스의 라이벌전은 '응답하라 1997'에 주요 테마로 쓰이며 재조명됐다.

강성훈은 “드라마 덕에 레트로 붐이 일어나면서 음악 장르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때 우리 세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재진도 “먹고 살기 각박하고 힘들면 본능적으로 옛것을 추억하듯 이 시대적인 측면도 반영된 것 같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무한도전'에 대한 고마움도 나타냈다. 은지원은 ““무한도전”이 없었다면 (재결성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젝스키스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 다시 뭉치기로 합의는 했지만 매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화려하게 컴백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쉬었으니 쉬지 않고 달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성훈은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신곡으로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은지원도

“YG가 실 틀을 안 준다. 양현석 형이 ‘16년간 쉬었는데 뭘 또 쉬느냐’고 했다. 처음에는 춤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차츰 적응되더라”고 웃었다.

“커플”, ‘기사도’, ‘연정’ 등 세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새 앨범은 전반적으로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편곡이 가미됐다. 그러나 완곡에 대한 팬들의 향수가 워낙 강한 데다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전자 사운드가 덧입혀져 감상평에는 호불호가 갈렸다. 은지원은 “사실 지난 9월 콘서트 때 ‘학원별곡’을 이런 스타일로 편곡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이때부터 준비하게 된 앨범이다. 개인적으로는 ‘로드 파이터’가 내 취향에 맞더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현재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고지용이 합류하지 않아 5인조로 활동한다는 것. 고지용은 대신 KBS 2TV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택했다.

H.O.T와 쌍벽을 이루던 시절의 추억담도 털어놓았다. 당시 팬덤 간의 경쟁은 무척 치열했다. 멤버들은 “팬들이 각자의 가수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며 “두 팀의 멤버끼리는 인사하고 토닥여주는 사이였다. 팬들이 라이벌을 이루며 우리도 원원하는 계기가 됐다. 리더를 서로 바꾸자는 말도 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H.O.T 문희준의 결혼 소식에 “축하 문자를 보냈다”며 “H.O.T도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덧붙혔다.

1세대인 만큼 2세대, 3세대로 이어진 지금의 아이돌 시장에서는 생소한 느낌도 적지 않다. 이번 앨범은 흥풍, 싱가포르, 대만 등 3개국 아이튠스의 글로벌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했는데 해외에서의 호응은

그전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다. 은지원과 강성훈은 “예전과 달리 해외 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며 “우리 때는 한류 열풍이 없었고 K팝이란 단어가 없었다. 해외 활동이 없었기에 후배들이 글로벌화된 게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음 세대의 차이점으로 “지금은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며 “수명이 짧은 반짝스타란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엑소가 ‘멜론 어워즈’에서 우리처럼 장수들로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눈물도 보였어. 하지만 지금은 빅뱅이 정상에서 10주년을 맞았고 슈퍼주니어도 활동 중이죠. 엑소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적어도 45살까지 아이돌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멤버들)

이들은 이날 YG에 대한 각별한 애사심도 나타냈다. 강성훈은 “받은 만큼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 서태지와아이들의 팬이었다. 은지원 형도 현석이 형을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내년 계획도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이미 신곡 몇곡은 녹음해뒀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노래도 있다. 내년 4월 15일 데뷔 20주년을 맞는 만큼, 새 앨범을 내면서 기념 공연을 무조건 열 계획이라고 한다. 팬들과의 접점을 이어가려면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고 한바탕 웃었다. 멤버들 모두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16년 만에 외모를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도 20대와 어울리는게 꿈이거든요. 하하.”(은지원) /연합뉴스

‘최순실 커넥션’ 의혹 가수 김장훈

“차은택 친하지만 지원 안받아”

춧불집회 나가는 마음 왜곡되지 않았으면

가수 김장훈이 일명 짜라시(증권가정보지)에서 제기된 ‘최순실 커넥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장훈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확산한 짜라시에서 제기된 최순실-차은택 관련설에 대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차은택과는 호형호제하는 친한 사이지만 차은택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은 지금도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다. 그를 본 것은 4년여쯤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은택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짜라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일도 없었고 최순실도 모른다”며 “최순실, 장시호 등 관련 인물들 아무도 모른다. 이걸 아니라고 대답하는 자체도 민망해서 하기 싫었다.”

내 이름 옆에 최순실이 함께 올라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모든 것의 배후에 최순실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2014년 12월 이탈리아 베네치아 골도니홀 공연 당시 차은택이 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적도 없고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제가 자문위원이었다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밀도 끝도 없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화융성위원회는 “몇몇 매체에서도 문기가 왔는데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거의 전 국민이 다 볼 정도로 확산한 짜라시에 대해 몇 번이나 해명하려다가 접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6차 춧불집회에 나간 것이 이러한 의혹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종편 보도에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짜라시에 함께 담긴 ‘거짓 기부’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오로이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여서 해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니 굳이 해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글을 올린 것 춧불집회에 나가는 마음과 행위만큼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에도 춧불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으로서 이번에는 청와대 100m 앞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현재나 봄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1차 청문회	10 좋은 아침 00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청문회
10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11		00 살림하는남자들(재)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꾸러기식사교실 50 텔레몬스터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1차 청문회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청문회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재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자연의 유산 인류의 자산 섬깁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드라마 <불야성>	00 월화드라마 <남민덕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히말라야 새해맞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통똥 유치원1~2 08:30 얼마 까투리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똥똥이 09:15 출동! 슈퍼피스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담고기 배추전골과 파래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겨라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셋 15:35 요술 상자2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똥똥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똥통똥 유치원1~2(재) 17:15 얼마 까투리(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정열의 나라, 멕시코를 가다 2부 멕시코 최고봉 오리사바를 가다> 21:30 한국기행 <뜨거운 겨울 2부 바다 위 뜨거운 인생> 21:50 EBS 다크프라이미 <강정시대-강정의 주인>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1월 8일 壬戌)

子	48년생 김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60년생 이 보 전진을 위해서 일 보 후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72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84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7, 38	午	42년생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행하라. 54년생 느긋 그대로 인식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 66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기득을 잡을 수 있느니라. 78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라. 행운의 숫자 : 96, 19
丑	49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61년생 결보 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 73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해될 것이다. 85년생 듣기는 하되 개인 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8, 32	未	43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리라. 55년생 서로 간에 유익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 모색해 보자. 67년생 원래 상태로 회귀할도 괜찮은 국량이 될 것이다. 79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99, 51
寅	50년생 양자의 중간에서 처세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된다. 62년생 대원이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라. 74년생 기본적인 행식을 중시해야 한다. 86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7	申	44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56년생 거처적 거처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68년생 집착을 버려야만 새로운 꿈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라. 80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8, 12
卯	51년생 원칙만을 따진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63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주관적인 예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87년생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취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20, 42	酉	45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57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69년생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다. 81년생 규명하고 있으면 아니 되니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라. 행운의 숫자 : 50, 47
辰	40년생 역풍이 불어 올 수도 있다. 52년생 발전 동력의 촉매제가 생긴다. 64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76년생 가장 적절한 것을 취하라. 88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만한 예로 사상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92	戌	46년생 생소한 길목에 놓여 있으니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일방적이거나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0년생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2년생 제3자의 관점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9, 81
巳	41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해안을 가질 것이다. 53년생 일이 대충할 가치도 없다. 65년생 과감히 떨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77년생 특별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89년생 사려 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3, 84	亥	47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59년생 알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71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83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6, 3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